

◎ 慶熙大, 미시건大와 자매결연 체결

경희대는 미시건주립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Assistant 부총장, Barbara Steidle 교수 등 미시건대 관계자가 6월 7일 내방, 중앙회의실에서 조영식 총장, 조정원 국교위 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다. Assistant 부총장 일행은 7일 자매결연 조인식에 서명한 뒤, 8일에는 수원캠퍼스 배태영 부총장을 예방하였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신건철 교수의 주선으로 교류협력에 관한 물꼬를 튼 뒤 미시건대 연례 Committee에서 동교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 東亞大, 삼한시대 유적발굴

동아대 박물관(관장 심봉근)이 지난 5월중 경부고속전철 부산·경남권의 75km 계획노선 주변 지역에 대해 '유물 및 유적지표 조사'를 벌인 결과 삼한, 초기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과 유적이 발견돼 공사에 앞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물관 조사팀은 동교 환경문제연구소의 생태계조사와 같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모두 21곳의 유물·유적 분포 지역을 발견했는데, 특히 노선이 직접 통과하는 울산군과 양산군에서 삼한, 초기신라시대의 유물이 다수 발견돼 '유물·유적의 소실'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심봉근 박물관장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경부고속전철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앞서, 이번에 확인된 유물·유적에 대한 조사발굴 및 현장보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西江大, 중국학자 초청 특별세미나 및 ACUCA 국제세미나 개최

서강대는 지난 5월 14일 다산관에서 북경대학 湯一介 교수, 樂黛雲 교수를 초청, 중국학자 초청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 전통문화에서의 眞·善·美'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본 洪水 神話'를 주제로 정인재(철학과) 교수, 최진석(북경대 철학과 박사과정) 선생, 조옥라(사회학과) 교수, 이선순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서강대는 5월 17, 1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평화교육과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ACUCA(아시아지역 크리스천대학 협의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막식에서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이 모임이 동아시아지역 평화 증진을 위해 크리스천대학들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시발점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홍콩 중국대학의 Joseph Boyle 교수의 강의 「교황회칙과 시를 포함한 평화교육」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이를 동안 「평화교육과 대학의 역할」, 「평화교육과 대학의 역할—인도네시아의 경우」, 「대학에서 평화와 사회정의의 교육」, 「평화교육과 대학의 역할」, 「평화를 위한 교육—홍콩 대학의 역할」, 「크리스천 고등교육의 평화 증진」, 「평화교육—내용과 문맥」, 「평화—믿음의 순례」 등 평화교육에 대한 각국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서강대, 계명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남대, 덕성여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1975년 설립된 ACUCA는 7개국 34개 교육기관이 회원이며, 현 회장은 태국 Assumption 대학의 Dr. P. Martin Komolmas 총장이 맡고 있다.

◎ 서울대 社研實, 토론회 개최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운영위원장 : 權泰俊 교수·환경계획학)은 지난 6월 4일 동교 문화관 국제회의실에서 '93년도 총회와 제 1차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서울대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반 문제들에 관한 개선안이 논의되었는데, △ 탁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의 제도와 기구(李基俊 공대 학장·화공학) △ 서울대학교 학사행정의 의사결정과정(姜信澤 교수·행정학) △ 서울대 교수의 역할(李光奎 교수·인류학) 등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공개토론회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는 '92년도 활동에 관한 평가와 안전토의가 있었다.

◎ 延世大 현대사상강좌위, 공개토론회 열어

연세대 현대사상강좌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동교 장기원기념관에서 '오늘의 우리 대학: 반성과 개혁'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동교 박홍이 교수, 윤세준 교수, 김균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제도 습 찾기와 질적 수준의 문제' (이상주 울산대총장), '정보화시대와 대학현실' (강희천 동교교수), '국제적 수준의 세계인식과 대학의 과제' (송자 동교총장), '대학의 장막과 정당성의 위기' (박영신 동교교수) 등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동교 현대사상강좌위원회가 학술계간지 『현상과 인식』과 함께 오늘날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교육의 질

적 수준 향상 방안—교수·학생·교육과정·교육여건면에서 △정보화 시대와 대학간의 관계—적응 혹은 비판 △대학경영의 전문화와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확대 △대학교수 채용과정의 문제점 등 다양한 대안과 의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 仁荷大, 한·불 공동 심포지엄 개최

인하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소장: 양창현 교수)는 한·불 공동 심포지엄을 지난 5월 25일 동교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경인지역과 국내 산업·학계 관계자에게 새로운 기술동향을 제시해준 이번 심포지엄은 '용수 및 폐수처리를 위한 물리화학적 처리공정에서의 최근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1부에서는 남상호(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막공정의 최근 동향과 발전' '압착이론' 등 4개 논문이 발표되었고, 2부에서는 윤태일(동교 환경공학) 교수의 사회로 '유동층을 이용한 응집기술의 폐기물처리와 조류분리의 지원' 등 3개 논문이 발표되었다.

◎ 한신대, '강의계획서' 제작·배포

한신대는 '93년 1학기부터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제'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과 교수들의 교수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1993년도 제 2학기의 '강의계획서'를 사

전에 제작·배포하였다. 300쪽 분량의 이 계획서 안에는 동교 전 학과 교수들의 출강요일 및 연구실 학생지도시간과, 개설되는 전 과목에 대해 각각 담당교수, 강의시간, 강좌의 내용과 목

표, 강좌운영방법과 과제물, 평가방법, 교제 및 참고문헌, 제한사항 등이 소개되어 있어 학생들은 이를 참조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학기말에 강의평가를 하게 된다.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66호('93. 11. 1 발간)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 용

- ① 대학교육에 관련된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 각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해외 고등교육의 동향 소개,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으로 다음 칼럼에 해당하는 글
- ② 해당 칼럼 :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교수담론」

2. 분 량

- ①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200자 원고지 45장 또는 5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시 7장 또는 8장(행길이 80, 행간 14로 하여 1장당 29행 기준)
- ② 「교수담론」: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25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실 경우 3장 또는 3장 반

3. 기 한 : 1993년 8월 10일

4. 고 료 : 200자 원고지 1장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출처 : ① 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앞

② 전화 780-7942, 783-3891, 팩스 780-8311

6. 참고사항

- ①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논단」의 경우, 반드시 200자 내외의 요약문이나 발췌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국한문을 혼용하되 한자를 제한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어를 써 주십시오.
- ④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